



생명보험의 이해 6: 전통적 생명보험상품

오병국 연구원

■ 생명보험상품은 전통적으로 3가지 기본형태의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왔음.

- 생명보험계약의 기본 형태는 정기생명보험(Term Life Insurance), 종신생명보험(Whole Life Insurance), 생사혼합보험(Endowment Insurance)임.

■ 정기생명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고, 생명보험의 가입보험금이 보장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며,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기간 만료 시에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 상품임.

- 정기생명보험은 순수보장성 생명보험으로 저축기능이 전혀 없음.
 - 즉, 저축과는 달리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적금식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.
-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1년, 3년, 5년 등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될수 있고, 60세 혹은 그 이상까지 가능함.
 - 단, 특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단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.
- 정기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자연보험료 방식으로 매년 보험료가 연령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고,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계약 초기부터 만기까지 보험료가 일정할 수 있음.
- 정기생명보험은 재계약선택권(renewability)이 주어지므로 1년, 5년, 10년 등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 피보험자는 부보적격성 여부에 관계없이 몇 번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음.
 -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재계약이 가능한 최고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, 보험료는 평준보험료가 적용되나 재계약 시 보험료는 도달연령에 따라 조정됨.
- 또한, 대부분의 정기생명보험은 계약전환선택권(convertibility)을 갖고 있으며, 동 선택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정기생명보험을 종신생명보험 또는 다른 종류의 저축성 생명보험계약으로 부보적격성(insurability)에 관계없이 전환할 수 있는 것임.
 - 계약전환 방식에는 도달연령방식(attained-age method)과 최초연령방식(original-age method)의 두 가지가 있음.

- 도달연령방식은 전환하려는 생명보험계약을 전환하는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이고, 최초연령방식은 전환하려는 생명보험계약을 최초보험계약 시점의 연령으로 소급하여 체결하는 것임.

■ 종신생명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장기간이 끝나는 상품임.

- 종신생명보험은 평준보험료 방식을 이용하여 계약 시부터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.
 - 종신생명보험료는 평준보험료이므로 사망확률이 낮은 젊은 시기에는 가입자의 사망확률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,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확률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.
- 종신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 중 일부가 계약준비금 형태로 적립되기 때문에 적립액에 대한 환급권이 계약자에게 창출됨.
 -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계약준비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, 이러한 대출을 약관대출(policy loan)이라함.
- 종신생명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길고 저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배당상품설계가 가능함.
- 종신생명보험은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보통생명보험과 유한납입종신생명보험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음.
 - 보통생명보험은 보험료납입을 종신토록 하는 것이며, 유한납입종신생명보험은 일정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임.

■ 생사혼합보험(양로보험)은 보험보장 기간이 정기생명보험과 같이 특정하게 정해지고, 동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,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.

- 생사혼합보험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평준보험료로 받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보험계약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.
- 생사혼합보험의 저축성은 정기생명보험 혹은 종신생명보험에 비해 일반적으로 크며, 보험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저축 기능이 더욱 커지게 됨.
- 또한, 상품설계 특성상 생사혼합보험에도 사망보장 기능이 존재하며, 보험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장기능이 더욱 작아짐.